

등대

제2회 문학상 수상 작품집

대상	소설	양진영	얼음 등대
최우수상	시	한승엽	등대의 재발견
	수필	이동열	희망의 등대
우수상	시	김미숙	책 읽는 등대
	소설	김성준	등대의 노래
	수필	김형욱	어머니와 등대
가작	시	김완수	등탑에 오르면
		김창석	등대의 엽원
		서상규	청사포의 쌍둥이 등대
		심금섭	내 오랜 습관, 야행
		우동식	등대의 사랑 법
		이동우	아버지의 등대
		이타린	구엄 도대불
		장인수	등대의 시원
		정연희	하얀 등대섬
		최선옥	바다 우체국
소설		김경순	밤배의 고향
		김은혜	비늘
		김학규	하얀 등대의 꿈
		문호성	물마루 위에서
		박슬기	등대(남자의 이야기)
		서혜린	그 애
		신상현	나였던 그 아이는 어디에 있는가?
		안병기	머구리
		최석규	등대섬
수필		김유석	등대쪽으로
		김현주	엄마의 밤바다, 그리고 등대
		박원중	속초 등대의 추억
		서상호	해맞이 언덕
		서은정	등대, 너 기기 있었니?
		유진선	꿈을 비추는 등대
		이정혜	그대, 등대로 오라
		이 서	나의 등대
		하요아	벚길의 집
		황숙이	무산소리

 울산지방해양항만청
ulsan.mof.go.kr

제2회
등대 문학상 수상 작품집

 울산지방해양항만청

등대

제2회 문학상 수상 작품집

 울산지방해양항만청

“얼어붙은 달그림자 물결 위에 차고...

한겨울의 거센 파도 모으는 작은 섬...

생각하라 저 등대를 지키는 사람의...

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을 ...”